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퇴직연금 500조 원 시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6.06.04.

(배경) 통합연금포털은 '15년 개시 이후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나, 여전히 연금 사업자 중심의 정보 제공에 머물러 있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용자 불편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연금상품 등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으로 금융사기 예방하세요!

금융감독원 2026.06.08.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등 다양한 신종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스스로 주요 금융사기 수법과 대응 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주요 금융사기 사례와 대응요령 등을...

외환시장 관련 보험권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2026.06.10.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권의 잠재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6.10.(수) 서영일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보험회사 (14개사) 재무담당 임원(CFO)과 환율상황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금감원은 시장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에...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2026.06.11.

'26.5월 쏘 금융권 가계대출은 +9.3조원 증가하여 전월(+3.5조원) 및 전년 동월(+5.9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여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 집중 점검 실시(매주).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은행권의 자율관리 조치 추진. 가계대출 차주의 추가약정 위반행위 총 1,174건 적발...

'26.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금융감독원 2026.06.19.

(경과조치 後) '26.3월말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後 지급여력비율(K-ICS)은 216.1%로 전분기

(212.3%) 대비 3.8%p 상승. 생보사 207.7%(전분기 比 +1.8%p), 손보사 229.7%(전분기 比 +7.8%p).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6.06.21.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 2026.06.23.

금융감독원은 '26.6.23.(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보험회사의 감사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함께 참여하여 별도 간담회(보험검사국장 주재)를 통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 2026.06.23.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 (예방 교육) 고의 교통사고 유형, 처벌, 대처요령 등이 담긴 전문 교통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26.6월 말부터). 숏폼, 카드뉴스 등 다양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

금융위원회 2026.06.18.

(적립금 198.2조원) 연금저축펀드 중심의 성장세 지속. 적립금이 전년(178.9조원) 대비 약 20조원 증가(+10.8%)하여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 상품별로는 연금저축펀드 적립금(61.3조원)이 전년 대비 50.7% 증가하여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연금저축신탁...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2026.06.16.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 연금도 그대로”.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

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2026.06.17.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월 17일(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서울 프레지던트호텔)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2026.06.19.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6월 19일(금)부터 6월 24일(수)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보건복지부 2026.06.2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6월 25일(목)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2026.06.19.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쟁송 제기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 절차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의 경우, 결정·재결의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법률에 두지 아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06.19.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수급액 규모를 고려하지...